

진천선수촌 찾아 국가대표 선수단과 수산물 특식 먹으며 ‘파리 올림픽’ 선전 기원

- 송명달 해수부 차관,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방문 -
- 국가대표선수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길

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4일(화)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찾아 ‘2024 파리 하계올림픽’ 개막 50일을 앞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와 감독들에게 수산물 보양식을 제공하며 격려했다.

송 차관은 연포탕, 전복 버터구이, 민물장어 튀김, 우럭찜, 모듬 숙회 등 보양식 수산물을 국가대표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직접 배식하고 함께 식사하면서, “2024 파리 하계올림픽을 50일 앞두고 더욱 훈련에 매진해 온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들께서 맛 좋고 영양 만점인 국산 보양 수산물로 기력을 보충하기를 바란다.”라며, “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맺길 응원한다.”라고 말했다.

또한, “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우리 국민께서도 전복, 장어, 우럭 등 맛과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많이 드시고 다가오는 여름을 잘 이겨 내시길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	책임자	과장	정기원 (044-200-5440)
		담당자	사무관	이지연 (044-200-5441)